

## 나무, 자연은 인간이 꾸는 꿈



식물성은 문인들에게 있어 형상화의 한 뿌리이다. 동물성이 '육망'의 기저에 닿아 있다면 식물성은 '희망'이거나 '생명'의 기저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나무를 모티브로 삼은 이운기의 소설과 김용택의 시, 두 작품은 인간이 만든 상처와 부조화를 치유와 조화로 이끄는 나무, 자연에 대한 경이를 담고 있어 이채롭다.

자연은 상처받았을 때 자정능력을 발휘한다. 더 이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 소설가 이운기는 1999년작 중편 《나무가 기도하는 집》을 통해 인간이 나무, 숲의 힘을 빌어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담히 보여준다. 작가는 인간과 자연의 삶을 생명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바라본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마흔이 다된 노총각 이민우, '우야 아저씨' (이름 끝 자를 따 부르는 경상도식 호칭 방식)는 나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집을 아예 '나무고아원'으로 만든 채 살아가고 있다. 그가 버려진 나무들을 주워 모아 치유하고 돌본다는 설정은 상징적이다. 그에게 마치 버려진 나무처럼 세상으로부터 내상을 입은 한 여자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홀어머니마저 여원 채 나무하고만 살고 있던 그의 집에 어느 날 요양을 하기 위해 기도원으로 가던 김송자, '자야 아가씨'가 찾아든다. 귀룽나무의 향취에 이끌려 올라왔던 그녀는 그의 집이 기도원인 줄 잘못 알고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실어증세를 보이는 환자이다.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그녀를 우야는 선뜻 내치지 못한다. 처음엔 의아해 하던 우야는 버려진 나무를 치유하듯이 상처입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때부터 둘의 기묘하지만 평온한 동거가 시작된다. 사람들의 의혹에 찬 눈길은 세속적 잣대에 불과할 뿐, 둘은 조화롭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지낸다. 소설의 결말에야 밝혀지는 자야 아가씨의 상처는 바로 형부의 성폭행이었다. 근친에게 입은 상처는 더욱 강렬했고, 이것이 실어증세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자야는 우야의 집에서 나무와 더불어 지냄으로써 비로소 서서히 안정과 평안을 되찾는다. 우야 또한 평생 나무만 사랑하던 마음을 열고 처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상처로 머뭇거리던 자야를 우야가 따뜻이 감싸 둘이 결합하게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나무로 대변되는 자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혼탁한 세상에 보내는 작가 이운기의 메시지이다. 이런 설정 속에서 《나무가 기도하는 집》은 극적 갈등관계보다는 나무와, 나무를 닮은 두 사람의 순결한 나이에 시선을 붙들어둔다.

자연 친화적인 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 온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의 시집 《나무》. 표제작인 〈나무〉를 비롯한 25편의 시편들은 무소불위의 자연에 대한 순응적인 자세와

자연 회귀의 염원을 담고 있다.

강가에 키 큰 미루나무 한그루 서 있었지/봄이었어/나, 그 나무에 기대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지//강가에 키 큰 미루나무 한그루 서 있었지/여름이었어/나, 그 나무 아래 누워 강물 소리를 멀리 들었지//(중략)/강가에 키 큰 미루나무 한그루 서 있었지 다시 봄이었어/나, 그 나무에 기대앉아 있었지//그냥./있었어. - 시 <나무> 중에서


나무 아래서 시인은 변함없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그 순리 속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나무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듯이 인간 역시 '그냥, 있'을 뿐이다. 단정적인 결미는 자연과 내가 결코 다른 존재가 아님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자연 앞에 어설플 몸짓을 해보야 소용없음을 간파한 인간의 '체념성' 까지 내포하고 있다.

시인이 보기에 자연은 자연 그대로 완전한 존재이다. 산문시 <봄바람에 실려가는 꽃잎 같은 너의 입술>에서 그는 '나무들이 내 앞에 끝없이 나서는, 나무들은 어디로 가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고 언제 바라보아도 완성된 세계를 보여준다' 고 노래한다. 것처럼 완전한 자연을 인간의 오만한 힘으로 훼손하고 있음을 <세한도>의 '뜯어고쳐야 할 세상을 두고 사람들은 강과 산을 뜯어고치' 려고 한다는 구절을 통해 강한 어조로 비난한다.



나아가 <숲>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나무, 숲과 하나가 된다. '온몸이 다 흔들리는, 구름을 딛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황홀함, 나는 할말을 잃네./오월의 숲에서/나는/나를 잃고/새 잎이 되네.' 숲에서 벌어지는 황홀한 새 잎의 탄생을 예찬하는 시인의 목소리엔 생명에 대한 경이가 묻어난다. 그 생명은 5월의 역사성으로까지 상상의 폭을 넓히는 근육질의 힘까지 낳는다.

시집에 담긴 많은 시편들에서 나무는 순수한 생명의 의지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차용되고 있다. 시인은 나무, 자연의 순환을 통해 그것과 꼭 닮은 인간 삶의 고락을 이해하려 한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삶의 영속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 시인은 살아야 할 이유를, 시를 계속 써야만 하는 이유를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늘 숲과의 동거에 익숙한 편이다. 한낱 감상의 줄기로 식물성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촉수가 같기 때문이다. 

강경희기자

